

백남준아트센터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자에 조안 조나스 선정	
문의	예술상: 김윤서 학예연구사 t.031-201-8553 m.010-4780-1020 취재: 이상아 학예연구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배포	2024. 11. 3.	쪽수 총 14매

**백남준아트센터,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자에 조안 조나스 (Joan Jonas) 선정**  
**: 11월 28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시상식**



Photo by Moira Ricci

수상자 조안 조나스 (Joan Jonas 1936-, 미국)

▶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예술상' 심사위원회는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 작가로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 선정

▶ 조안 조나스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디오,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여러 분야를 통섭하고 융합하며 다양한 현대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아티스트

▶ '백남준 예술상'은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주최하는 예술상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으로 운영한 기존 수상 제도를 개편하고 새 이름으로 재개한 것. 이번 조안 조나스의 예술상 수상은 미술 창작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거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심사 기준과 체계를 개편·재개한 성과

▶ 예술상 심사위원장 프란시스 모리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전 테이트모던 디렉터)는 조안 조나스에 대해 "초기 비디오와 퍼포먼스 아트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생태, 인간과 비인간 친족 관계를 주제로 새로운 영역을 계속 탐구하고 있다."고 평가

▶ 수상자 조안 조나스는 "위대한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으로 상을 받아 기쁘다."고 전하며, "내년 한국에서의 개인전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힘

▶ 2024년 11월 28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시상식, 2025년 하반기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 개최 예정

## ■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자 선정

- 수상자 : 조안 조나스 (Joan Jonas 1936-, 미국)
- 수상내역 : 상금 한화 5천만원과 트로피, 2025년 백남준아트센터 개인전 개최
- 주 최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후 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 백남준 예술상 심사위원회는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 작가로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를 선정하였다. 조안 조나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비디오,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여러 분야를 통섭하고 융합하며 다양한 현대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아티스트이다. 일찍이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모니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자신의 퍼포먼스를 결합한 초기작은 비디오 시대에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물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문명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에 대항하는 창작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탐구와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다.

백남준 예술상은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주최하는 예술상으로, 2009년 신설해 2021년까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으로 7회 운영하였다. 지난 2년간 예술상 개편으로 기존 심사 항목인 창의성, 실험성, 급진성에 더해 미술 창작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아티스트를 선정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거장으로 국내 전시 개최 의미와 가치 확산 가능성이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조안 조나스의 예술상 수상은 개편 이후 2024년 '백남준 예술상'으로 새롭게 재개한 성과다.

백남준아트센터는 2024 백남준 예술상 운영을 위해 전 세계 미술 전문가를 균형있게 위촉하고 예술상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예술상은 운영위원회가 국제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추천위원회가 각 1인(팀)의 작가를 추천, 심사위원회가 10인의 후보 작가를 심사하여 최종 수상 작가 1인(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과 위촉위원 프란시스 모리스(이화여자대학교 초빙석좌교수, 전 테이트모던 디렉터), 김성원(리움미술관 부관장), 라인 볼프스(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디렉터), 마미 가타오카(모리미술관 디렉터)와 같은 세계적 미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예술상 심사위원장인 프란시스 모리스는 조안 조나스에 대해 “초기 비디오와 퍼포먼스 아트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후 위기, 생태, 인간과 비인간 친족 관계를 주제로 한 몰입형 설치 작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계속 탐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조안 조나스의 작품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예술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2024년 백남준 예술상 수상을 계기로 조안 조나스의 예술을 현재 시점에서 풍부하게 해석하고 확산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비디오와 퍼포먼스 아트의 선구자로서 오늘날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로 불리는 조안 조나스의 백남준 예술상 수상이 젊은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접할 기회가 매우 적었던 그의 작품 세계를 국내 관객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백남준 예술상 수상 소식에 조안 조나스는 “위대한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으로 상을 받아 기쁘다.”고 전하며, “내년 한국에서의 개인전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시상식과 함께 조안 조나스의 초기 비디오 작품 상영, 예술상 수상 기념 강의를 마련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조안 조나스는 한화 5천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고, 2025년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예술상 시상식 개최

- 일 시: 2024년 11월 28일 오전 11시
-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 수상자: 조안 조나스 (Joan Jonas)
- 내 용: 시상식, 스크리닝, 예술상 수상 기념 강연\*사전녹화
- 대 상: 누구나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방문 전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상세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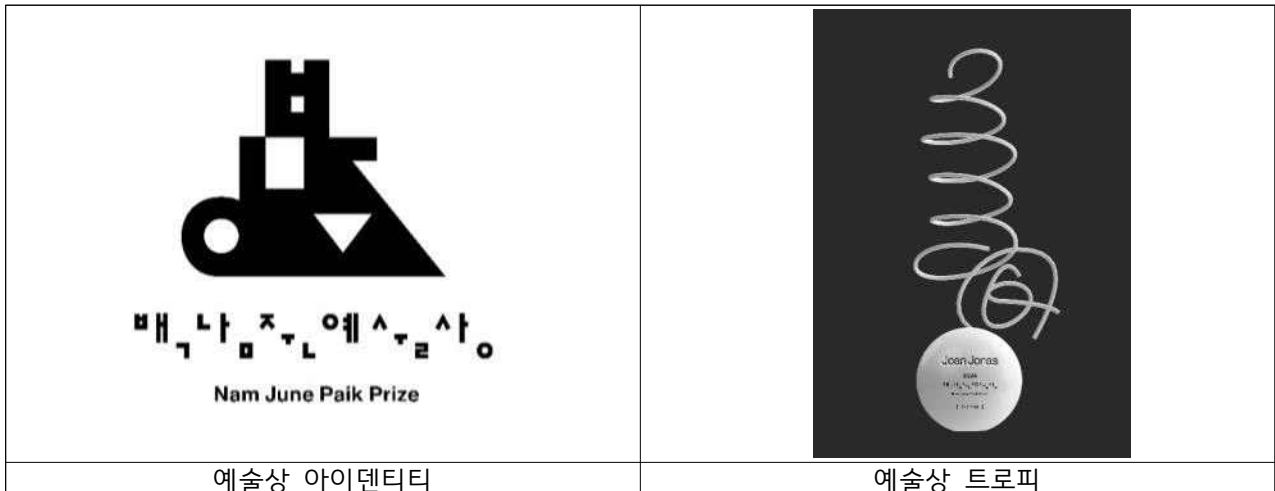
## [첨부]

### ■ 백남준 예술상 소개

백남준 예술상은 경기도가 후원하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주최하는 상으로, 시각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섭한 백남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과 공명하는 아티스트의 창작에 경의를 표하고 국내에 확산하고자 제정되었다. 미술과 음악을 결합하고 기술과 예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던 백남준의 예술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증진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이다. 2009년 제1회 예술상은 이승택, 안은미, 로버트 애드리안 엑스, 씨엘 플로리에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2회 예술상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에게 수여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더그 에이트킨, 2014년 하룬 미르자, 2016년 블라스트 씨어리, 2018년에는 트레버 페글렌, 2020년에는 캠프가 각각 수상하였다. 2009년 예술상 제정부터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이라는 이름으로 7회 운영하였으며 수상 제도 개편을 거쳐 2024년부터 '백남준 예술상'으로 재개하였다.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 주기로 개최하는 예술상의 수상자는 상금 한화 5천만원을 받고, 수상 다음해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다. (역대 위원회 및 수상자 10-14쪽 참조)

### ■ 백남준 예술상 아이덴티티 그래픽디자인 및 트로피 소개

2024년 백남준 예술상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디자인과 트로피를 세계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안상수가 총괄해 예술상의 의미를 더했다. 안상수는 문자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하는 작가이자 타이포그래퍼로서, 백남준의 서명과 드로잉에서 착안한 트로피를 헌정한다. 백남준이 즐겨 그린 나선형 곡선에서 시작한 안상수의 해석은 트로피 형태의 전형성을 탈피해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백남준의 정체성과 특유의 위트를 담아 전위적인 조형으로 완성했다. 안테나를 연상케 하는 트로피는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상승하는 기운의 의미를 함축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 수상자 소개: 조안 조나스 (Joan Jonas 1936-, 미국)



Photo by Toby Coulson



Photo by Toby Coulson

조안 조나스(1936년 뉴욕 출생)는 현재까지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 사운드, 텍스트, 조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진행한 조나스의 실험적 작품은 퍼포먼스와 비디오부터 개념미술과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대미술 장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68년부터는 보는 방식, 의식의 리듬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조나스는 전 세계의 뮤지엄, 갤러리 및 대규모 그룹 전시회에서 전시, 상영, 공연으로 선보였다. 도큐멘타 5, 6, 7, 8, 11, 13, 제28회 상파울로비엔날레, 제5회 코치-무지리스 비엔날레, 제13회 상하이비엔날레에 참여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뉴욕 드로잉센터,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런던 테이트모던, 포르투 세랄레스 미술관, 상파울루 피나코테카, 마드리드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 디아 비콘,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최근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다. 2018년에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정신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교토상을 수상했다.

## ■ 조안 조나스의 대표작 소개



### 버티컬 롤 (Vertical Roll)

1972, 비디오, 흑백, 유성, 19분 38초

조나스는 <버티컬 롤>에서 “환영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이 작품은 송수신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이 깨져 보이는 글리치 현상을 작가가 조작하여 화면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검정 막대, 즉 버티컬 롤을 생성한다. 이 작품은 두 대의 카메라로 제작한 것으로, 한 대의 카메라는 조나스의 공연을 녹화하고 그 이미지를 라이브 피드를 통해 버티컬 롤 효과와 함께 텔레비전 모니터에 전달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이 모니터의 화면을 녹화하여 최종 영상을 생성했는데 조나스는 이 영상의 사운드를 위해 직접 나무 블록을 치는 소리를 별도로 녹음하여 영상에 더했다.



### 볼케이노 사가 (Volcano Saga)

1985/1989/1994/2011, 비디오, 28분 30초

1985년에 시작해 2011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발전한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 <볼케이노 사가>는 꾸준히 새로운 이야기 방식을 모색하는 조안 조나스의 실험성을 잘 보여준다. 조나스는 1985년 비디오 아티스트 스타이나 바술카(Steina Vasulka)와 함께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직후 <볼케이노 사가>를 시작했다. 조나스는 한 여성의 꿈에 관한 아이슬란드 구전 설화 <락스다일라 사가>(Laxdaela Saga)를 재해석해 이를 퍼포먼스로 선보였으며, 드로잉, 스크린은 물론 여러 소품을 더하기도 했다. 1989년에는 이 이야기를 배우 킬다 스윈튼(Tilda Swinton)과 론 보터(Ron Vawter)가 출연하는 영상으로 각색했는데, 스윈튼과 보터는 아이슬란드 풍경 이미지 위에 겹쳐 등장하며 그 자체로 일련의 캐릭터가 된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설치 작품으로 발전한 이 작품은 조나스의 표현에 따르면 “여성 캐릭터의 전개, 거울로서의 스토리, 내러티브의 표현으로서의 화산 풍경을 종합하는 작업의 시작”이다.





© Joan Jonas/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육지를 떠나서 II (Moving off the Land II)

2019,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58분

5개의 비디오 프로젝션, 드로잉, 유리상자, 거울 등 가변설치

조나스는 비디오 총체극 <육지를 떠나서 II>를 통해 바다와 바다 생물, 생물 다양성, 섬세한 생태에 경의를 표한다. 해양 생태계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대양에 머물렀던 작가들의 문학과 시, 신화와 전설을 엮어 낸다. 그리고 이를 수족관과 조류 번식, 남획으로 심각한 환경 위기에 놓인 자메이카에서 촬영한 영상과 결합했다. 스크린에 투사된 생명체들을 어루만지는 조안 조나스와 해양 생물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이며 멀티미디어 총체극을 이룬다.

## ■ 2024년 백남준 예술상 위원회

### 제 8 회 백남준 예술상 2024

■ 수상자 : 조안 조나스 Joan Jonas

■ 위원회 (3종)

▷ 운영위원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당연직  
김성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임근혜 (아르코미술관 관장)  
최두은 (현대자동차 아트랩 아트디렉터)

▷ 추천위원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팀 \*당연직  
김장언 (아트선재센터 관장)  
락스미디어컬렉티브 (아티스트, 아트디렉터)  
미르얌 바라디니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큐레이터)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솔랑주 파르카스 (비디오브라질 디렉터)  
아나 야네프스키 (뉴욕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유코 하세가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디렉터)  
케이 왓슨 (서펜타인 아트테크놀러지 디렉터)  
크리스틴 반 아쉬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 심사위원

프란시스 모리스 (이화여자대학교 초빙석좌교수, 전 테이트모던 디렉터) \*심사위원장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당연직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  
라인 볼프스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디렉터)  
마미 가타오카 (모리미술관 디렉터)

## ■ 예술상 연혁(2009-2021)

### 제 1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09

- 수상자 : 이승택, 안은미, 씨엘 플로이에, 로버트 애드리안 엑스  
Lee Seung-taeck, Ahn Eun-me, Ceal Foyer, Robert Adrian X
- 추천 및 심사위원
  - ▷ 해외 작가
    - 헝크 불 (밴쿠버 센터 에이 관장)
    - 정도련 (뉴욕 현대미술관 부큐레이터)
    - 우도 키틀먼 (베를린 국립미술관 관장)
    - 테츠오 코가와 (작가, 도쿄 게이자이대학 교수)
    - 바바라 반델린던 (독립 큐레이터)
  - ▷ 국내 작가
    - 최정화 (작가, 가슴시각 개발연구소 소장)
    - 김미경 (강남대 미술대학 교수)
    - 임근준 (미술 & 디자인 비평가)
    - 홍성민 (작가,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제 2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10

- 수상자 :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 추천 및 심사위원
  - 자비에르 두루 (르 콩소르티움 디렉터)
  - 안느-마리 뒤게 (파리 1대학 교수)
  - 블프 헤르조겐라트 (쿤스트할레 브레멘 관장)
  - 성완경 (인하대학교 교수, 전 광주비엔날레 디렉터)

### 제 3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12

- 수상자 : 더그 에이트킨 Doug Aitken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 추천위원
    - 스테파니 로젠탈 (헤이워드 갤러리 수석큐레이터)
    - 토비아스 버거 (M+ 큐레이터)

이숙경 (테이트 리버풀 큐레이터)  
백지숙 (아뜰리에 에르메스 디렉터)  
김성희 (페스티벌 봄 디렉터)

▷ 심사위원

강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홍라영 (삼성미술관 Leeum 부관장)  
바트 드 베어 (엔트워프 현대미술관 관장)

#### 제 4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14

■ 수상자 : 하룬 미르자 Haroon Mirza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가즈나오 아베 (야마구치 미디어아트센터 예술감독)  
데이빗 조슬릿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교수)  
김장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학예 2팀장)  
서현석 (작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안경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심사위원

마이코 스텝스 (리버풀 FACT 관장)  
노부오 나카무라 (기타큐슈 CCA 관장)  
김선정 (아트센재센터 부관장, 사무소 관장)  
안규철 (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제 5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16

■ 수상자 : 블라스트 씨어리 Blast Theory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후미히코 수미모토 (아츠 마에바시 디렉터)  
캐서더린 우드 (테이트 모던 퍼포먼스 수석큐레이터)  
루돌프 프릴링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미디어아트 큐레이터)  
이영준 (계원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 심사위원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제프리 쇼 (홍콩시티대학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니콜라스 드 올리베이라 (몬타보넬 & 파트너스 연구 및 기획프로젝트 디렉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제 6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18

■ 수상자 : 트레버 페글렌 Trevor Paglen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김성원 (국립아시아문화원 전시예술감독,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토비아스 버거 (홍콩 타이완 예술감독)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알렉시-글라스 캔터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디렉터)  
마크 B. N. 한센 (듀크대학교 문화학과장, 미디어 비평가)  
필립 지글러 (ZKM 미디어아트센터 수석큐레이터)  
오마르 콜라이프 (샤르자예술재단 컬렉션 디렉터)  
히로미 구로사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 심사위원

김흥희 (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조나단 왓킨스 (버밍햄 이콘갤러리 관장)  
마미 가타오카 (도쿄 모리미술관 학예실장)  
잉케 아른스 (도르트문트 하트바레 미디어콘스트페어라인 예술감독)

## 제 7 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20

■ 수상자 : 캠프 (CAMP)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나탈리 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리스트 시각예술센터 큐레이터)  
미첼 반 다르텔 (네덜란드 로테르담 브이투 언스테이블미디어 연구소 디렉터)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퍼포먼스 및 비디오 큐레이터)

스튜어트 코머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미디어 및 퍼포먼스 수석큐레이터)  
안젤름 프랑케 (독일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시각예술 및 필름 수석큐레이터)  
조선령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 교수)  
조 버트 (베트남 호치민시 팩토리 컨템포러리아츠센터 예술감독)  
페트릭 플로레스 (필리핀대학교 예술연구 교수, 호르헤 바르가스 미술관 큐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 심사위원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다니엘 번바움 (영국 어큐트 아트 디렉터)  
디터 다니엘스 (독일 라이프치히 시각예술대학교 미술사 및 미디어 이론 교수)  
유진 탄 (싱가포르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관장)